

블랙핑크, 곧 K팝 걸그룹의 역사...방탄소년단 명성 잇는다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200’ 1위 데뷔 ‘대니티 케인’ 이후 14년 만에 걸그룹 1위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로 10월1일 자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 ‘빌보드 200’에서 K팝 걸그룹 첫 1위이다. K팝 전체를 통틀어선 방탄소년단(BTS), 슈가엔,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네 번째다.

데뷔 6주년을 맞은 블랙핑크는 현재 걸그룹·보이그룹 포함 명실상부 K팝 대표 그룹이다. 방탄소년단이 개별 활동 주력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그룹 활동에 당분간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걸 채울 수 있는 팀으로 통한다. 블랙핑크는 ‘본 핑크’로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두 차트를 동시에 거머쥔 K팝 그룹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뿐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진흥원)이 이달 초 발간한 ‘2022 글로벌 한류 트렌드’(18개국 8500명의 해외 한류 소비(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선호 한국 가수/그룹’ 부문에서 블랙핑크(10.4%)는 방탄소년단(26.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선 K팝 신기록을 연이어 쓰고 있다. ‘본 핑크’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이 스포티파이 ‘톱 송 글로벌 주간 차트’에 한국 가수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은 해당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다.

블랙핑크는 2016년 8월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봄바야’를 내세운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으로 데뷔했다. 화려한 외모로 대정 기획사 YG를 등에 업고 주목 받은 팀. 블랙핑크를 평가절하 할 때 등장하는

‘단골 문구’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전까지 네 멤버 각자의 상당한 피·땀·눈물이 섞여 있었다.

배우를 꿈꾸다 비교적 뒤늦게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수(27),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제니(26),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로제(25), 태국인 리사(25)까지. 이들은 오랜 기간 연습생 생활을 했고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학창 시절의 추억이 쌓이지 않았다.

2020년 공개된 넷플릭스 최초 K팝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Blackpink: Light Up the Sky)의 시청을 끝낸 순간, ‘셀럽 블랙핑크’가 아닌 인간 김제니(제니)·김지수(지수)·로제(박채영)·리사(라리사 마노반)를 뿔아보게 된다.

‘소금, 산, 지방, 불’로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던 한국계 미국인 캐롤라인 서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가장 많이 할애되는 건, 어린 시절 집을 떠난 멤버들의 마음이다.

다큐에서 로제가 집,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연습생 생활을 쉽지 않았다. 멤버들은 매일 소속사 대표와 프로듀서 앞에서 개인·그룹평가를 받았다. 연습생 초반에는 ‘경쟁’에 몰두하기도 했다. 하지만 블랙핑크 멤버들은 연습생 생활을 긍정했다. 제니는 “K팝을 K팝답게 만드는 건 연습생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네 멤버가 어느 날부터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 순간, 이들은 가족이 됐다.

블랙핑크 팀 이름은 가장 예쁜 색으로 통하는 핑크색을 살짝 부정하는 의미다. ‘예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의 의미를 담았다. 반대로 검은색처럼 무대 위 강렬함을 뽐내지만 사람스런 매력도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또 특별한 상품 앞에 ‘블랙’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특별한 걸 그룹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외모만이 이들의 무기가 아니라는 증거다. 특히 이번 ‘본 핑크’는 강렬한 힙합을 기반 삼았다. 앨범에 실린 8개 트랙 중 3곡이 19금 판정을 받을 정도로 더 센 기운을 강조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블랙핑크 다섯 번째 멤버’라고 입을 모으는 YG의 간판 프로듀서인 테디 박은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에서 “블랙핑크는 유니크하며 다양한 문화의 결합”이라고 했다. 매체 노출이 극도로 적은 그는 블랙핑크를 위해 이 다큐에 출연했다.

양현석 프로듀서는 블랙핑크 론칭 당시 “예쁜 멤버들을 뽑았다고 음악까지 예쁘고 귀엽게 하고 싶진 않았다. YG의 스타일을 지켜가면서 다양한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블랙핑크가 가고 있는 길은 곧 K팝 걸그룹의 역사다.

그간 ‘빌보드 200’에선 2012년 그룹 ‘소녀시대’의 유닛그룹 ‘태티서’가 미니앨범 ‘트윙클’로 126위를 차지했고, 2014년 ‘2NE1’의 ‘크리시’가 61위, 소녀시대 ‘미스터미스터’가 110위를 차지했다. 이후 한동안 해당 차트에서 K팝 걸그룹의 이름은 보이지 않다가 2018년 블랙핑크가 ‘스퀘어 업’으로 40위에 안착하면서 이 차트에서 K팝 걸그룹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EP ‘킬 디스 러브’로 24위를 찍었고, 2020년 10월 정규 1집 ‘디 앨범’으로 2위까지 치고 오른 것이다. 블랙핑크가 균열을 낸 이후 ‘빌보드200’도 K팝 걸그룹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 빌보드200에서 ‘본 핑크’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블랙핑크가 가는 길은 K팝 걸



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걸그룹 역사가 됐다. 빌보드 전체 여성그룹으로 따지면, 이번 ‘빌보드 200’ 1위는 2008년 4월5일 자에서 미국 그룹 ‘대니티 케인(Danity Kane)’이 ‘웰컴 투 더 돌하우스’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14년5개월 만이다.

또 2001년 팝 슈퍼스타 비욤세 등이 속했던 미국 걸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Destiny’s Child)’ 이후 21년 만에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동시에 1위에 거머쥔 여성 그룹이라는 기록도 썼다.

지난 6월엔 아시아 걸그룹 최초로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잡지 ‘롤링스톤’ 커버를 장식

하기도 했다. 전 세계 걸그룹 중에선 스पा이스 걸스, 데스티니스 차일드에 이은 세 번째였다.

방탄소년단에게 팬덤 아미가 있다면 블랙핑크엔 팬덤 블링크가 있다. 남성 팬뿐만 아니라 여성 팬도 상당수다. 미국의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세일러 일리스도 블링크를 자처한다.

전 세계 팝스타들의 협업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두아 리파, 레이디 가가, 셀레나 고메즈, 카디 비와 협업했다. 존 레전드 등도 블랙핑크에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마크·해찬, 한달반만에 또 주경기장...NCT 127도 드림 이어 입성

데뷔 6년 만에 국내 콘서트업계 성지 무대 올라



그룹 ‘엔시티(NCT) 127’이 ‘NCT’의 또 다른 유닛 ‘NCT 드림’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입성

한다. 2016년 데뷔한 지 6년 만이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127은 오는 10월 22~23일 올림픽주경기

장에서 두 번째 월드 투어의 서울 스페셜 공연 ‘네오 시티 : 서울 더 링크 플러스(NEO CITY : SEOUL - THE LINK +)’를 연다.

이번 스페셜 공연은 작년 12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관객 수의 제한이 있어 많은 팬들과 함께 하지 못한 서울 콘서트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무대다.

SM은 “합성과 때장이 허용된 3년9개월 만의 단독 콘서트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정규 4집 ‘질주 (2 Baddies)’ 발매를 기념해 다수의 신곡 무대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스타디움인 올림픽주경기장은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꿈의 무대’으로 통하는 곳. 이곳에서 단독으로 공연한 국내 가수는 손에 꼽는다. H.O.T, 신화, god, 조용필, 동방신기, 이승환, 이승철, JYJ, 이문세, 서태지, 예소, 방탄소년단, 싸이 정도다. 해외 팝스타 중에서는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폴 매카트니, 폴드폴레이 등이 공연했다.

이달엔 무려 2팀이나 이곳에서 새로 공연했다. 지난 8~9일 NCT 드림 콘서트와 지난 17~18일 아이유 콘서트 모두 모두 성황리에 끝났다. 특히 NCT 127 멤버인 마크와 해찬은 NCT 드림 멤버이기도 해 약 한달 반만에 올림픽주경기장 무대에 오르는 기록을 쓰게 됐다.

‘tvN 슈룹’ 일곱 왕자들의 여심 잡는 스틸



‘슈룹’ 일곱 왕자들의 캐릭터 스틸컷이 26일 공개됐다.

tvN 새 토일드라마 ‘슈룹’은 자식들을 위해 기품 따윈 버리고, 사고뭉치 왕자들을 위해 치열한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든 중전의 파란만장 궁중 분투기를 그린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성남대군(문상민 분), 의성군(강찬희 분), 계성대군(유선호 분), 무안대군(윤상현 분), 보검군(김민기 분), 일영대군(박하준 분), 그리고 특별출연 왕세자(배민혁 분)의 각기 다른 매력이 담겼다.

먼저, 중전 화령(김혜수 분)의 사고뭉치 대군들 중 ‘건방진 애물단지’로 불리는 둘째 아들 성남대군은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움과 배딱함을 지닌 인물. 차가운 표정 속에 슬픈 감정이 서린 눈빛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꽃미모’를 지닌 계성대군과 능청과 엉큼을 오가는 ‘날파람둥이’ 무안대군, 막둥이 일영대군까지 취미도 성향도 다채로운대군들의 모습 이 흥미를 자아낸다.

영의정 황원형(김의성 분)을 외조부로 두고 있는 의성군은 날카롭게 잘생긴 외모로 귀티가 절로 흐른다. 하지만 잘난 얼굴만큼이나 비정함과 야욕도 넘친다. 이 때문에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대군들과는 그리 썩 친하지 않으며 성남대군과는 만나면 부딪히는 앙숙이다.

이어 왕족 자체들의 교육기관인 ‘종학’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 보검군의 반듯한 표정도 포착됐다. 보기만 해도 배우른 태소용(김가은 분)의 자랑스러운 자식 보검군은 왕실 교육 전쟁에 어떤 존재로 부각될지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지막으로 존재만으로도 화령의 방어막이 돼주는 국본 세자의 늑골한 자태까지 ‘슈룹’의 왕자 라인업이 완성됐다. 일명 ‘완벽남’으로 불리는 세자가 딱딱뒤틀린 시련은 무엇일지 호기심이 더해진다.

오는 10월 15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

비아이, 11월 컴백...‘러브 오어 러브드’

가수 비아이가 오는 11월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131레이블은 26일 비아이의 글로벌 앨범 프로젝트 ‘러브 오어 러브드(Love or Loved (L.O.L.))’ EP 파트1 발매를 예고하는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콘셉트를 암시하는 메모리카드 오브제를 담고 있다. 장미꽃 그림도 새롭게 등장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러브 오어 러브드’는 비아이의 글로벌 음악 활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비아

이는 지난 5월 솔자보이(Soulja Boy), 드비타(DeVita)와 함께한 선공개 싱글 ‘BTBT’로 론칭을 알렸다.

‘BTBT’는 음원 플랫폼 ‘바이럴 50’ 51개 지역 차트인에 성공, 아이튠즈 49개 지역의 K팝 차트 1위, 애플 뮤직 46개 지역 K팝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비아이는 최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비롯해 각종 페스티벌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러브 오어 러브드’는 순차적으로 관련 티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탤런트 성혁, 내달 동갑내기과 결혼

탤런트 성혁(38·홍성혁)이 결혼한다.

26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성혁은 다음달 21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는 동갑내기 비연예인이다. 약 2년 여간 열애 끝에 부부 연을 맺는다.

성혁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결혼 소식을 밝혔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한다. 좋은 인연을 만나 서로 힘이 돼 함께 하기로 다.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나에게 항상 힘이 돼 주는 친구"라며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



할 수 있게 해주는 인연과 함께 걸어가 보려 한다"고 썼다.